

금남로에서

물총싸움 하자



융합의 세계로
장르를 넘어



박해정 작
'욕망과 몰락 사이의 두려움'

스페이스K_광주 '하이픈'전...8월27일까지

새로운 조형을 실험하는 작가들의 전시가 광주에서 열린다. 스페이스K_광주는 8월27일까지 강준형, 박해정, 이정후, 차혜림씨를 초대해 '하이픈'(Hyphen)전을 연다. 전시 주제 하이픈은 두 가지 속성의 개념을 연결하는 이음표인 동시에 여러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의 약칭으로 사용된다.

작가들은 다양한 매체를 유연하게 다루면서 융합적인 작품을 창작하고 있는 이들로 모두 35점을 선보인다.

강준형씨는 낭만적 사랑과 행복을 주제로 세라믹, 페인팅, 오브제 및 영상작업에 자전적 이야기를 서정적으로 담아낸다. 박해정씨는 얼룩말 무늬를 연상케 하는 입체작품과 사진, 드로잉을 한꺼번에 전시, 일상의 폭력과 불안감을 표현한다.

이정후씨는 사진과 설치 작품에서 현대인의 심리적 불안을 나타내고, 차혜림씨는 자신의 경험과 기억 등을 문학적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담아낸 회화와 설치작업을 선보인다. 문의 062-370-5948.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물총축제' 26일 오후 1시 전일빌딩~금남공원에서

커플·싱글·남녀 대결...시민군 vs 계엄군 '5·18 퍼포먼스'

'물 줌 주소' 콘서트·DJ 파티...지역 청년들 의기투합 기획

진짜일까. 진짜다.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폭폭 쩌는 더위를 날려줄 물총축제가 열린다. '누구나 서로 물총을 쏘고, 맞으면서 즐기자'라는 단순한 목표가 이번 축제의 컨셉이다.

특히 이번 축제는 SNS를 통해 모인 광주·전남 지역 청년들이 기획·진행하는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4 광주물총축제추진위원회'는 26일 오후 1시부터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 도로(전일빌딩~금남공원)에서 소셜페스티벌 '물총축제'를 진행한다.

이번 축제는 크게 워터존, 협찬부스존, 체험부스존, 세이프존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워터존에서는 본격적인 축제 시작에 앞서 '조아브르' 등 지역 인디밴드의 버스킹 공연과 댄스 공연이 열린다.

이어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물총패션 퍼레이드'가 진행된다. 퍼레이드에는 광주·전남 총학생회협의회와 지역 각 대학 학생들이 참여해 다양한 물총 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축제 전 단체참가 신청을 받으며 패션과 퍼포먼스 등을 평가해 최고팀을 선발한다.

축제 하이라이트인 물총싸움은 신나는 여름음악과 함께 펼쳐진다. '커플 vs 싱글', '남성 vs 여성', '10대 vs 20대' 등 대결이 시간대별로 펼쳐지고, 광주의 이야기를 담은 '시민군 vs 계엄군' 5·18 퍼포먼스도 진행된다. 곳곳에서는 물풍선이 폭탄처럼 떨어진다 것이 주최 측 설명이다.

지역의 다양한 공연팀이 플라보레이션 공연으로 무대를 꾸미는 '물 줌 주소' 콘서트, 전문 DJ와 댄서들이 진행하는 '물 난리 DJ파티'도 준비돼 있다.

이 밖에도 이벤트 존에서는 워터 슬라이딩, 물풍선 터트리기 등 물을 주제로 한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고, 가족단위 참가자들을 위해 마련된 세이프 존에는 '워터슬라이드', '에어바운스 폴장' 등 물놀이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지난해 서울 신촌에서 열린 '신촌 물총축제'가 계기가 됐다. 신촌 물총축제에서 메인 MC를 맡았던 광주대 장초롱 학생이 '신촌 물총축제 추진위원회'와 함께 올리는 전국적으로 축제를 진행해보자고 이야기를

꺼냈고, 이에 공감한 이벤트 MC, 공연팀, 문화기획자, 고등학생 등 지역 청년 15명이 합세했다.

지난 2월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gimulchong>)을 개설해 추진위원들을 모으기 시작한 이지훈씨는 "이번 축제의 첫 번째 목표는 물총축제를 즐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 청년들이 모여 청년들이 원하는 축제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진위원들은 SNS를 통해 최근까지 수(水)태프 300여 명을 모집했고, 모두 4차례에 걸쳐 안전교육과 응급처치법, 심폐소생술 등 교육을 진행했다.

사전접수를 통해 등록된 물총축제 참가자는 이날까지 모두 1000여 명이다. 주최 측은 적게는 5000명에서 많게는 1만 명의 참가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 물총축제 페이스북에는 이날까지 모두 8500여 명이 공감한다는 취지의 멘트를 남기기도 했다. 특히 광주·전남총학생회협의회를 비롯해 광주시청소년단체협의회, (사)민생평화광장 등 단체들이 협력 단체로 나섰고, 광주시도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축제 참여는 무료다. 단 '물총축제 추진위'는 행사 진행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물품 보관소, 드라이기, 타올, 탈의실 등 이용이 가능한 패키지를 소셜 커머스 및 현장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수익금은 지역 아동단체와 청소년단체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물총축제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신촌 물총축제'가 올리는 전국으로 확대돼 광주와 울산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축제 모습. <광주물총축제추진위원회 제공>



중국 영화계와 손잡고 광주국제영화제 도약한다

중 산서성 태원·섬서성 서안과 협약

(사)광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정동제)가 떠오르는 영화 시장인 중국 영화계와 교류를 강화하며 도약을 준비한다.

광주국제영화제는 최근 중국 산서성의 태원과 섬서성의 서안, '북경전영학원', '중국청년영화제평창'과 함께 영상 문화 교류를 위한 각종 협약에 합의하고 MOU를 체결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양국은 ▲한-중 공동 영화제 개최 ▲한-중 영화포럼 공동 주최 ▲한-중 합작 영화 제작 ▲공동 다큐멘터리 제작 ▲애니메이션 센터 건립 추진 등 구체적인 사업들을 공동 주관하게 된다.

영화제측은 오는 8월28일부터 9월1일까지 롯데시네마 총장로관에서 열리는 2014 광주국제영화제에서 '중국영화 주간-시네마실크로드' 개막식을 별도로 갖고 중국 영화를 집중 상영한다. 이번 행사에는 중국 영화 9편이 상영되며 중국 영화계 대표 및 단체장들이 대거 광주를 찾을 예정이다. 이어 오는 10월에는 섬서성 서안에서 한-중 공동 영화제가 개최된다. 영화제측은 지난해 2월부터 중국 영화계를 이끌어갈 지역으로 꼽히는 태원, 서안과 교류 작업을 진행해왔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산서성 정부가 주최하고 광주국제영화제와 산서성 광과전시총국이 공동 주관하는 '한국영화제 (Korean Film Week In SHANXI, CHINA 2014)'를 개최했다.

영화제에는 엄정호 광주국제영화제 상임이사, 조복래 수석프로그램 등 광주영화제 대표단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안동규 제작자, '말하는 건축가'의 정재은 감독, '몽타주'의 정근섭 감독 등이 참석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062-369-9227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농협 653-12-003100
에금주 박주환